

한-아세안 FTA 체결이후 수출유망품목의 수출동향



CONTENTS

목 차

요 약 / 1

I. 한-아세안 FTA 추진경과와 의의 / 2

II. 국별 수출동향과 FTA활용 애로사항 / 5

5	1. 인도네시아
11	2. 말레이시아
15	3. 필리핀
21	4. 베트남
27	5. 태국

III. 시사점 / 31

요약

한-아세안 FTA는 2007년 6월 1일 발효이후 직간접적으로 한국의 對 아세안 수출확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한국의 수출대상국 순위에서 아세안은 FTA체결 이전인 2006년 4위에서 2010년에는 중국에 이은 2위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아세안 10개국의 시장상황과 통상여건이 달라 협정의 내용도 국가별로 상이함에 따라 한-아세안 FTA의 활용률이 여타 FTA에 비해 낮은 상황이다.

FTA체결이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아세안 주요국의 수출상위 10대 품목의 수출은 전체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출증가세를 보였다. FTA체결로 수출이 유망할 것으로 전망된 품목들도 대부분 수출이 증가하였으나, 일부 품목들은 관세인하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감소하였다. 이는 FTA에 따른 관세인하혜택보다는 중국 저가제품과의 경쟁, 수요의 감소 등 현지시장 여건의 변화가 주원인으로 보인다. 태국은 2010년 1월 1일에 FTA를 발효하였고, 베트남은 2016년까지 일반품목의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어서 FTA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체적으로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품목별로 수출이 호불호를 나타내고 있는 이유로는 FTA관세혜택이 일부품목에 제한되는 점도 있지만 경쟁국들이 아세안과 FTA를 동시에 체결함으로써 한-아세안 FTA 자체만으로 효과가 반감되는 데 있다.

FTA의 활용에 있어 아세안 주요국의 바이어와 진출기업들은 공통적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의 간소화, 관세인하품목이나 관세인하품의 즉각적인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FTA효과를 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일본의 예에서 보듯이 양자간 FTA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I 한-아세안 FTA 추진경과와 의의

□ 발효 4년을 맞는 한-아세안 FTA의 추진경과

- 한-아세안 FTA의 상품협정은 2007년 6월 1일 발효이후 만 4년이 경과
 - 아세안은 6억의 인구와 1.5조억 달러의 GDP 규모를 가진 거대 경제권이며 한-아세안 FTA는 우리나라가 거대 경제권과 맺은 최초의 FTA
- 2007년 6월 1일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이 발효되었으나, 2010년 1월 1일 태국이 협정을 발효함으로써 협정대상국 모두가 발효를 완료

< 한-아세안 FTA 추진 경과 >

시기	내용
2004.11.30	한-아세안 정상회담시 FTA 협상개시 선언
2005.12.13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에 서명
2006. 8.24	상품협정 재서명 및 개성공단제품 특별관세부여 이행 관련 서한 서명 및 교환
2007. 6. 1	상품협정 발효 (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미얀마)
2008. 1. 1	필리핀, 상품협정 발효
2008. 7. 1	브루나이, 상품협정 발효
2008.10. 1	라오스, 상품협정 발효
2008.11. 1	캄보디아, 상품협정 발효 (태국제의 전 국가 상품협정 발효)
2009. 5. 1	서비스 협정 발효
2009. 9. 1	투자협정 발효
2010. 1. 1	태국,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및 서비스 협정 발효

자료원 : 외교통상부

- 한-아세안 FTA의 활용률(수출활용률 약 29%, 수입활용률 약 59%)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여타 FTA와 비교시 낮은 상황이나¹⁾, 상품양허 자유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높아질 전망

1) “윤영선 관세청장, 중소기업 지원대책 발표”, 관세청, 보도자료(2011.1.14)

- 아세안 6개국2)의 상품양허 자유화는 2012년, 베트남은 2018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2020년 완료 예정

< FTA 활용률(금액기준) >

구 분	한-칠레('04.4)	한-아세안('07.6)	한-인도('10.1)
수 출	97%	28.7%	16.4%
수 입	94%	58.5%	44.7%

주 : 활용률은 실제 특혜관세 적용 수출(입)액/특혜관세 대상품목 수출(입)액
 자료원 : 관세청

□ 한-아세안 FTA 체결이후 아세안은 제2의 수출대상국으로 부상

- FTA체결 이전인 2006년 한국의 對아세안 수출액은 320억 달러에서 2010년 532억 달러로 급증
 - 수출대상국 순위에서도 2006년 4위에서 2010년 중국에 이은 제2위 수출대상국으로 부상
 - * 2006년 한국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중국, 미국, EU, 아세안, 일본 순임.
 - 2006년에서 2010년까지 4년 동안 對아세안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8.2%로 전체 연평균 수출증가율(5.9%)을 상회

<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액(2006~2011) >

구분	전체		아세안	
	금액(US\$백만)	증가률(%)	금액(US\$백만)	증가률(%)
2006	325,465	14.4%	32,066	16.9
2007	371,489	14.1%	38,749	20.8
2008	422,007	13.6%	49,283	27.2
2009	363,534	-13.9%	40,979	-16.8
2010	466,384	28.3%	53,195	29.8
2011(1~5월)	227,189	26.7%	28,721	38.7

자료원 : 무역협회

2)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 아세안 FTA 체결에서도 한·중·일 경쟁 치열

- 아세안 시장에서 한국, 중국, 일본은 주요수출품목에서 경합이 치열한 상황으로 중-아세아 FTA(2005.7월), 일-아세안 CEPA(2008.12월) 각각 발효됨으로써 FTA는 아세안시장 선점을 위한 기본 조건
 - 중국은 상품교역의 경제적 효과보다는 중국 위안화의 결제통화 추진 등 아세안시장내에서의 중국의 위상강화에 역점
 - 일본은 아세안과 FTA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개별 국가와의 FTA(EPA) 별도 추진
 - * 일본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브루나이 등과 개별 FTA(EPA) 체결

- 아세안 시장진출을 위해 중국, 일본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같이 개별국가와의 FTA를 적극 추진 필요
 - 한국은 베트남과 FTA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중이며(2011년 3월 현재 3차 회의 개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도 공동연구를 개시하기로 합의

II 국별 수출동향과 FTA활용 예로사항

1. 인도네시아

1) 수출유망품목과 수출동향

□ FTA체결이후 주요품목의 수출동향

-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수출은 2010년 89억 달러로 FTA체결 이전인 2006년 대비 83% 증가하였으며, 4년간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16.2%임.
- 수출상위 10대 품목중 2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체 평균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출증가를 기록

<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수출상위 10대 품목의 수출액(2010) >

(단위 : US\$백만)

순위	품목명 (HS코드)	2006	2007	2008	2009	2010	연평균 증가율
	총계	4,874	5,771	7,934	6,000	8,897	16.2%
1	제트유 (271019)	1,083	1,364	2,297	843	2,259	20.2%
2	휘발유 (271011)	185	131	181	665	953	50.7%
3	염색편물 (600622)	103	136	219	215	282	28.6%
4	탱커선 (890120)	0	1	2	1	184	376.9%
5	라디오/TV 부품 (852990)	95	117	113	119	173	16.2%
6	편물 (600410)	82	94	119	124	161	18.3%
7	녹음/녹화기 부품 (852290)	127	105	127	171	155	5.1%
8	LCD (901380)	76	88	115	103	131	14.7%

9	휴대폰 (851712)	0	11	54	107	119	-
10	열연강판 (720839)	4	2	40	41	100	125.3%

자료원 : 무역협회

- 수출상위품목에서 민감품목인 철강(HS코드 : 7208)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관세가 철폐되었거나 MFN대비 관세혜택이 없어 한-아세안 FTA에 따른 관세혜택이 미미한 실정
- 현지 진출봉제기업의 원부자재로 수출되는 편물(HS코드 : 6006)의 경우 FTA에 따라 2010년부터 관세가 철폐되었으나, 원부자재로 수입시 무관세임.

<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수출상위 10대 품목의 관세율(2010) >

(단위 : %)

순위	품목코드 (HS코드)	MFN	FTA			
			2007	2008	2009	2010
1	제트유 (271019)	0	0	0	0	0
2	휘발유 (271011)	0	0	0	0	0
3	염색편물 (600622)	10	8	5	3	0
4	탱커선 (890120)	0	0	0	0	0
5	라디오/TV 부품 (852990)	0	0	0	0	0
6	편물 (600410)	10	8	5	3	0
7	녹음/녹화기 부품 (852290)	5	0	0	0	0
8	LCD (901380)	5	0	0	0	0
9	휴대폰 (851712)	0	0	0	0	0
10	열연강판 (720839)	5	5	5	5	5

자료원 : 인도네시아 관세청

□ FTA에 따른 수출유망품목과 수출액 변화

- 2007년 한-ASEAN FTA 발효 당시 수출유망품목으로 예상한³⁾ 10대 품목의 수출은 FTA 발효 이후 2010년까지 연평균 8.2% 증가

< FTA체결당시 對인도네시아 수출유망(예상)품목의 수출액 >

품목명	HS코드	수출금액(US\$백만)				연평균 증가율
		2007	2008	2009	2010	
폴리에틸린	390110	52.7	47.4	22.4	32.1	-15.23%
	390120	10.6	10.9	8.6	8	-8.95%
폴리프로필렌	390210	30.7	55.3	25.3	13.7	-23.58%
면직물	520931	4.5	4.6	4.9	6.2	11.27%
	520932	4.6	5.6	2.3	2.5	-18.39%
	521031	27.8	32.9	24.1	18.9	-12.07%
	521032	1.4	0.4	0.1	0.2	-47.72%
	521041	0.6	0.5	0.2	1.2	25.99%
	521049	1.1	0.1	0.05	0.2	-43.35%
합성필라멘트직물	540761	32.3	35.6	31.6	48.5	14.51%
직조레이블	580710	34.3	36.9	43.8	50.4	13.69%
철·비합금 평판압연제품	720916	12.9	30.1	19.4	26.5	27.12%
	720917	24.8	43.2	44.5	51.5	27.58%
	720918	40.4	49.3	53.7	39.4	-0.83%
주석도금 평판압연제품	721012	28.4	42.8	29.8	38.1	10.29%
건설중장비	842952	18.2	43.9	28.7	83.5	66.16%
자동차	870321	-	-	-	0.02	-
	870322	13.5	12.6	10	32.8	34.44%
	870323	3.2	2.5	0.6	13.5	61.58%
자동차부품	870829	2.1	3.7	4.1	5.8	40.30%
	870899	49.5	41.1	20.7	25	-20.36%
합계		393.6	499.4	374.85	498.02	8.16%

자료원 : KOTRA 자체기획조사, 무역협회

3) 한-아세안 FTA 체결 후 대아세안 수출유망품목, KOTRA, 2006.5

- 품목별로 수출이 호불호를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FTA에 따른 관세혜택 보다는 인도네시아 내·외부 시장여건과 국내수요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됨.
- (건설중장비) 2009년부터 관세가 철폐되었고 최근 석탄, 인프라 사업호조가 동 제품의 수출을 견인하면서 가장 높은 수출증가율(66.2%)을 기록. 일본산 중장비의 시장지배력이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지 주택, 도로 건설 경기 호황에 따른 수요증가가 수출에 호재로 작용
- (자동차) 최근 구매력 증가로 자동차 판매가 호조세로 2010년 한국 완성차/조립용 차량 수출이 각각 62%, 34% 증가. 반면, 완성차에 대해서는 10~40%의 사치세가 부과되고 있고 일본차 시장 독점 구조로 인해 향후 수출증가에는 한계
- (자동차부품) Door Trim 차량용 부품 수출은 2007~2010년 동안 40%를 넘는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였으나, Fuel Tank 부품의 수출량은 20.4% 감소. 2007년부터 한국계 현지기업(KORINDO)의 현대자동차 현지 조립 생산이 시작되었으나 판매량은 저조
- (철강) 철.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의 수출은 인도네시아의 주택, 도로 등 건설경기 호조와 현지의 절대적인 철강 생산량 부족이 수출증가의 주요인
- (면직물) FTA로 관세가 인하 및 철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아세안 FTA에 따라 중국산 저가 면직물의 수입증가로 한국산 면직물 수출이 감소

< 수출유망(예상)품목의 관세율 비교 >

(단위 : %)

품목명	HS코드	MFN (2011)	AK-FTA				
			2007	2008	2009	2010	2011
폴리에틸린	390110	10-15	5-10	5-10	0-10	0-10	0-10
	390120	15	10	10			
폴리프로필렌	390210	15	10	10	10	10	10
면직물	520931	10	8	5	0	0	0
	520932	10	8	8			
	521031	10	8	5			
	521032	10	8	5			
	521041	10-15	8-10	5-8			
	521049	10	8	5			
합성필라멘트직물	540761	15	10	8	0	0	0

직조레이블	580710	10	8	5	0	0	0
철.비합금 평판압연제품	720916	7.5-10	7.5-8	5-7.5	3-7.5	3-7.5	3-7.5
	720917	7.5-10	7.5-8	5-7.5	3-7.5	3-7.5	3-7.5
	720918	0-10	0-10	0-10	0-10	0-10	0-10
주석도금 평판압연제품	721012	12.5	10	8	5	5	5
건설중장비	842952	10	8	5	0	0	0
자동차	870321	10-40	13-55	10-55	0-45	0-45	0-45
	870322	10-40	13-55	13-55	0-55	0-55	0-55
	870323	10-40	13-55	13-55	0-55	0-55	0-55
자동차부품	870829	10	10-15	8-15	0-15	0-15	0-15
	870899	10	10	8	0-5	0-5	0-5

자료원 : 인도네시아 무역부

2) 인도네시아 바이어의 FTA활용과 애로사항

- 한국산 제품을 수입하는 인도네시아 바이어들은 한-아세안 FTA 관련정보의 부족,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문제, 현지 비관세장벽 등이 한-아세안 FTA활용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

① PT. Ardi Sakti (철강 수입)

- (문제점) 현대와 Posco에서 angles/shapes 등의 제품을 수입하고 있으나 2012년까지 수입관세가 15%로 관세율 인하가 없음.
- (개선사항) 한국정부에서 인도네시아 정부에 관세율 인하를 강력히 주장할 것을 요청. 15%의 높은 관세로 인해 저렴한 중국산 대비 시장경쟁력을 잃고 있음.

② PT. Pintu Mas Mulia Kimia (화학제품 수입)

- (문제점) 화학첨가제의 관세율이 현행 0%이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동 사로 하여금 5%의 수입관세를 부과. 그 배경으로 판중쁘리옥 세관과 인도네시아 관세청 공무원들은 동 한-아세안FTA(AKFTA)에 대한 정보를 모르고 있다고 주장
- (개선사항) 한국정부가 인도네시아 정부에 AKFTA 안내 시스템 개발을 하도록 요청해줄 것을 당부. 특히, 제품별 관세율 정보 시스템 개발이 필요

③ PT. Kobexindo Tractor (건설중장비 수입)

- (문제점) 한국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받아야 하나 한국수출업체가 해당서류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몰라 AKFTA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개선사항) 한국정부가 한국수출업체들을 대상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FTA 교육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

④ PT. Ashoka Permata Indonesia (섬유제품 수입)

- (문제점) 인도네시아 정부가 섬유제품에 대해 수입-생산자(Importer-Producer)에 한해 원재료 수입이 허가하고 일반 수입상은 수입 불허. 섬유 원재료에 수입시 정부가 고용한 별로 조사원의 보고서를 필요로 하고 Jakarta, Semarang, Surabaya, Makassar, Medan 등 5개 항구에서만 수입이 가능함.
- (개선사항) 한국 정부가 인도네시아 정부에게 섬유제품에 대한 수입 장벽 제거를 요청

⑤ PT. Citra Langgeng Sentosa (철강 수입)

- (문제점) Flatrolled steel을 한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나 최근 4%의 반덤핑 추가 관세를 내고 수입함.
- (개선사항) 동 반덤핑 관세부가 조치는 중국산 제품 때문으로 한국산 제품은 선의의 피해자라고 언급하며 한국정부가 적극적으로 동 사안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

2. 말레이시아

1) 수출유망품목과 수출동향

□ FTA체결이후 주요품목의 수출동향

- 한국의 對말레이시아 수출은 2010년 61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FTA 체결이전 (2006년) 대비 약 17% 증가, 4년간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4%임.
- 골프차량(HS코드 : 854231)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수출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액정디바이스, 안테나/부품 등은 크게 증가

< 한국의 對말레이시아 수출상위 10대 품목의 수출액(2010) >

(단위 : US\$백만)

순위	품목명 (HS코드)	2006	2007	2008	2009	2010	연평균 증가율
	총계	5,227	5,704	5,794	4,325	6,115	4.0%
1	광학용 액정디바이스 (901380)	55	168	540	591	897	101.0%
2	탱커선 (890120)	0	40	25	140	388	-
3	메모리 (854232)	0	196	198	236	331	-
4	안테나/부품 (852990)	55	168	197	182	289	51.4%
5	인쇄회로 (853400)	169	217	246	182	204	4.8%
6	전자회로 (854231)	0	861	665	236	187	-
7	골프차량 (870323)	263	115	91	30	185	-8.4%
8	제트유 (271019)	125	7	46	56	144	3.6%
9	고무 (400251)	0	0	2	26	91	-
10	철·비합금 평판압연제품 (720917)	44	53	86	76	86	18.2%

자료원 : 무역협회

- 수출상위 10대 품목의 관세는 FTA체결이후 관세가 모두 철폐되었으며, 특히 수출이 크게 증가한 광학용 액정디바이스, 철·비합금 평판압연제품은 FTA 관세가 일반관세(MFN) 대비 각각 30%, 25% 낮아 FTA에 따른 관세혜택이 큰 것으로 나타남.

□ FTA에 따른 수출유망품목과 수출액 변화

- FTA 체결에 따라 對말레이시아 수출유망(예상) 품목⁴⁾의 대부분은 연평균 두 자리수 이상의 수출증가율을 기록
 - 한국산 비금속제품은 '10년부터 MFN 적용국과 관세율 차이가 품목에 따라 5~25%까지 벌어져 FTA 최대 수혜 품목 중 하나
- 다만, 품목에 따라 수출 증가세의 차이는 단순한 FTA관세율 변화이외에도 말레이시아의 시장상황이나 수요변화에 따라 차이가 발생
 - 말레이시아 제조업 분야의 성장(자동차, 전자제품 등) 및 대규모 프로젝트 건설사업 추진으로 비금속류, 기계류에 대한 수요가 증가

< FTA체결당시 對말레이시아 수출유망(예상)품목의 수출액 >

품목명	HS코드	수출금액(US\$백만)				연평균 증가율
		2007	2008	2009	2010	
승합차	870210	7	19	29	35	49.5%
승용차	870323	115	91	30	185	12.6%
자동차부품	870899	51	47	27	39	-6.5%
폴리스티렌	390330	58	54	49	72	5.6%
폴리에틸렌	390120	7	8	16	25	37.5%
철·비합금강의 봉	721391	16	58	56	63	40.9%
에이치형강	721633	1	4	23	45	159.0%
알루미늄 합금판	760612	27	59	38	44	13.0%
구리선	740811	12	29	25	40	35.1%
플라스틱류(고무)	400219	16	23	16	28	15.0%
건설중장비	842952	5	5	8	20	41.4%
건설중장비부품	843149	16	19	15	16	0.0%
과일	080810					
	080820	-	0.6	1.2	2.7	-
	081010					
합계		331	416.6	333.2	614.7	22.92%

자료원 : KOTRA 말레이시아KBC 자체조사

4) 한-아세안 FTA 체결 후 대아세안 수출유망품목, KOTRA, 2006.5

- 수출유망품목의 한-아세안 FTA 관세율은 일반관세(MFN)보다 낮게 나타나 향후에도 관세혜택에 따른 수출증가세는 지속 전망
 - 다만,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한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 일본, 호주 등도 이미 말레이시아와 양자간 혹은 ASEAN을 통한 다자간 FTA,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등을 맺고 있어 관세인하 효과보다는 제품의 경쟁력이 수출에 관건

< 수출유망(예상)품목의 관세율 비교 >

(단위 : %)

품목명	HS코드	MFN관세 (2011)	한-아세안 FTA 관세				
			2007	2008	2009	2010	2011
승용차	870323	5~35	5~8	5	0	0	0
폴리스티렌	390330	10	0~8	0~5	0	0	0
철봉	721391	5	10	8	5	0	0
에이치형광	721633	5	13	10	5	0	0
알루미늄 합금판	760612	30	13	10	5	5	5
구리선	740811	25	8	8	8	8	8
자동차부품	870899	0-35	0~8	0~5	0	0	0
플라스틱류(고무)	400219	0~25	0~13	0~10	0~5	0~5	0~5
폴리에틸렌	390120	20	0	0	0	0	0
건설중장비	842952	5	5	5	0	0	0
건설중장비 부품	843149	5~8	5	5	0	0	0
과일(사과,배,딸기)	080810	5	5	5	0	0	0
	080820						
	081010						

자료원 : 말레이시아 관세청

2) 말레이시아 진출기업의 FTA활용과 애로사항

- 말레이시아 진출기업의 경우, 한-아세안 FTA 활용시 장애요인으로 일부품목의 관세혜택 부족(양허제외 등), 복잡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등을 지적

① D사(무역업)

- (애로사항) 철강제품이 중점 품목이나 많은 철강제품들이 FTA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어 있어 실질적인 효과 미비
- (개선방안) FTA적용 품목 확대 필요

② G사(무역업)

- (애로사항) 발급절차가 번거롭고 많은 시간소요
 - FTA 원산지 증명서를 상공회의소에서 발급시 B/L을 같이 등재하게 되어 있으나 B/L을 발급 받으려면 제품이 선적된 후이나 발급가능하며 선적 후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함.
 - 이런 경우 간혹 증명서보다 물건이 도착지에 먼저 도착하여 통관에 어려움이 있음.
 - * 통관시 원산지 증명서원본이 필요하므로 증명서 발급받고 다시 우편으로 도착지에 보내서 통관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소요되므로 간혹 통관지연에 따른 창고보관료가 발생
- (개선방안) 원산지 증명서 신청시 B/L 없이 생산 수량 혹은 연간 수량 등으로도 발급이 가능하게 신청 서류 간소화하고 발급 소요시간도 단축

③ T사(산화철안료)

- (애로사항)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정확한 안내 부족
 - 2011년부터 FTA관련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이 간소화 되었으나, 여전히 신청 절차가 복잡하며 요청하는 서류들을 구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어 신청자체가 쉽지 않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공회의소에 문의했으나 정확한 안내가 부족
- (개선방안) FTA 원산지증명 간소화 및 홍보

④ K사(주방용품)

- (애로사항) 발급진행 절차 복잡
 - 당국의 바이어가 원할 경우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아 첨부하는데 진행 절차가 까다롭고 서류가 복잡하나 세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현재 이용하고 있음
- (개선방안)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제출서류 단순화

3. 필리핀

1) 수출유망품목과 수출동향

□ FTA체결이후 주요품목의 수출동향

- 한국의 對필리핀 수출은 FTA가 체결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8% 증가한 58억 달러를 기록
 - 주요 수출품목은 산업용 원자재가 중심으로 다국적 기업 및 우리나라 전기 전자 업체의 현지 가공용 수출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
 - 전체 수출의 40% 이상은 전자부품(반도체)이며 산업용 석유화학제품, 철강 제품 등도 높은 비중

< 한국의 對필리핀 수출상위 10대 품목의 수출액 >

(단위 : US\$백만)

순위	품목명 (HS코드)	2006	2007	2008	2009	2010	연평균 증가율
	총계	3,931	4,420	5,016	4,567	5,838	8%
1	전자회로(854231)	0	1,130	1,139	1,064	1,777	12%
2	휘발유(271011)	151	163	370	370	321	16%
3	제트유(271019)	268	521	519	396	210	-5%
4	기타비금속(280461)	0	4	54	115	197	165%
5	축전지(853224)	10	45	58	117	179	78%
6	구리선(740811)	75	116	118	92	176	19%
7	철강판(720851)	2	20	120	36	109	122%
8	승용차(870323)	0	18	5	23	73	42%
9	앰블런스(870332)	41	60	73	53	70	11%
10	승합차(870210)	5	25	44	46	64	67%

자료원 : 무역협회

- FTA로 관세가 인하된 기타비금속, 철강판, 승합차 등은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각각 165%, 122%, 67%로 높은 수출증가세를 기록

< 수출상위 10대 품목의 관세율 비교 >

(단위 : %)

순위	품목코드 (HS코드)	MFN	FTA			
			2007	2008	2009	2010
1	전자회로(854231)	0	0	0	0	0
2	휘발유(271011)	5	5	5	5	5
3	제트유(271019)	1	1	1	0	0
4	기타비금속(280461)	3	3	3	0	0
5	축전지(853224)	0	0	0	0	0
6	구리선(740811)	8	8	8	8	8
7	철강판(720851)	7	5	3	0	0
8	승용차(870323)	30	Sensitive list			
9	엠블런스(870332)	30	Sensitive list			
10	승합차(870210)	5	5	5	0	0

자료원 : 필리핀 관세위원회

□ FTA에 따른 수출유망품목과 수출액 변화

- 2007년 한-ASEAN FTA 발효 당시 對필리핀 수출유망품목으로 예상한⁵⁾ 10대 품목의 수출은 FTA 발효 이후 2010년까지 연평균 5.4% 증가
- 철강(HS코드 : 721633)은 FTA에 따른 관세철폐로 MFN관세(3%) 대비 혜택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감소하는 등 FTA관세철폐와 관계없이 품목별로 수출이 혼조세
 - 이는 대부분의 공산품이 무관세인 경우가 많고 수출증가 품목은 대부분 FTA 체결로 인한 효과보다는 세계경제와 필리핀 현지여건 그리고 기업여건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으로 분석됨.

5) 한-아세안 FTA 체결 후 대아세안 수출유망품목, KOTRA, 2006.5

< 한국의 對필리핀 수출유망(예상)품목의 수출액 >

품목	HS코드	수출금액(US\$백만)				연평균 증가율
		2007	2008	2009	2010	
세라믹축전기	853224	37.4	32.6	89	181.7	69.4%
반도체	854231	493.3	398.2	415.5	563.5	4.5%
석유제품	271011	195	380.6	330.8	344.3	20.9%
	271019	271.9	320.7	342.3	119.7	-23.9%
무선전화기	852520	3.7	16.2	9	10.4	41.1%
인쇄회로	853400	18.9	15.1	19	10.7	-17.3%
합성수지	390210	35.3	25.5	16.7	18.4	-19.5%
버스	870210	39.8	37.5	42.9	62.3	16.1%
철강	721633	12.2	7.9	2.7	4.8	-26.7%
	720851	0.2	5.7	0.5	2.5	132.1%
	721012	30.9	29.6	29.7	40.9	9.8%
세제원료	340211	1	0.7	0.2	0	-
복합비료	310520	7.4	4.5	13.5	9.1	7.1%
HDPE	390120	1.2	1.5	1.5	1.8	14.5%
LDPE	390110	14.5	16.4	13	14.3	-0.5%
PP	390210	35.3	25.5	16.7	18.4	-19.5%
열연강판	7208	7.6	11.1	8.7	20.3	38.7%
냉연강판	7209	17.8	10.5	13.8	11.1	-14.6%
석도강판	7204	0.5	0.5	0.2	0.1	-41.5%
전력선	8544	25.3	15.9	17.7	29.7	5.5%
전력탑	730820	3.2	4.6	7.9	0.6	-42.8%
합계		1,252.4	1,360.8	1,391.3	1,464.6	5.4%

자료원 : KOTRA 마닐라KBC 자체조사

- FTA 체결로 관세율이 철폐 또는 상당폭 인하되어 수출여건의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품목에서 중국제품과의 경쟁이 불가피하고 가격경쟁력에서 열위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 FTA의 경제적 효과는 기대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 FTA 체결이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 중국, 아세안 국가들 간에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우리나라만의 수혜는 곤란하다는 점에서도 효과는 반감됨.
- 특히,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는 철강 및 대형차, 플라즈마 TV 등 고급 가전제품의 경우, 일본-필리핀간 자유무역협정(JPEPA) 체결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수출유망(예상)품목의 관세율 비교 >

(단위 : %)

품목명	HS코드	MFN관세 (2011)	AK-FTA관세				
			2007	2008	2009	2010	2011
세라믹축전기	853224	0	0	0	0	0	0
반도체	854231	5	5	5	0	0	0
석유제품	271011	3	3	3	5	5	5
	271019	3	3	3	5	5	5
무선전화기	851712	0	0	0	0	0	0
인쇄회로	853400	0	0	0	0	0	0
합성수지	390210	15	Highly sensitive list				
버스	870210	20	Sensitive list				
철강	721633	3	3	3	0	0	0
	720851	0	Sensitive list				
	721012	0	0	0	0	0	0
세제원료	340211	10	8	5	0	0	0
복합비료	310520	3	3	3	0	0	0
HDPE	390120	15	Highly sensitive list				
LDPE	390110	15	Highly sensitive list				
PP	390210	15	Highly sensitive list				
열연강판	720825	0	3	3	0	0	0
냉연강판	720915	0	3	3	0	0	0
석도강판	720430	3	3	3	0	0	0
전력선	854411	7	5	3	0	0	0
전력탑	730820	10	8	5	3	3	3

자료원 : 필리핀 관세위원회

2) 필리핀 바이어의 FTA활용과 애로사항

- 한-아세안 FTA에 따라 일반품목의 관세가 대부분 철폐된 상황에서 필리핀 바이어들은 철강, 가전제품, 화학제품 등 한국의 주력수출품목이 FTA협상에서 민감품목으로 분류되어 관세 혜택이 미미한 점을 애로사항으로 지적

① MONROE INTERNATIONAL INC.(자동차부품 수입)

□ FTA활용 및 애로사항

-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기존 고율관세보다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음으로써 동 품목의 시장상황이 호전되고 있음.
- 자동차부품은 일본의 수입차 및 현지 제조 차량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한국차 대상의 A/S시장을 상대로 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틈새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나 필리핀이 자국 자동차산업의 육성을 위한 현지 제조업체 보호차원에서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점이 큰 애로로 작용하고 있음.
- 또한, 일본-필리핀 자유무역협정(JPEPA) 체결로 일본산 부품은 대부분 무관세인 반면 한국산 부품은 30-40%의 고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일본 부품과의 경쟁 자체가 어려운 상황

□ 개선의견

- 일본-필리핀 자유무역협정(JPEPA)과 같은 수준의 한국-필리핀 쌍무협정 체결을 통한 무관세 혹은 저율관세 필요
- 자국산업 육성을 위한 내수시장 보호 방향으로 정책이 선회되고 있어 일부 부품의 현지생산도 고려해볼 단계

② GREENHILL INTERNATIONAL TRADING (냉연강판 수입)

□ FTA활용 및 애로사항

- 지난 2개월간 냉연강판 가격이 크게 요동을 친 바 있으나, 한국측으로부터의 공급이 매우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 현지에서의 영업에 어려움은 없는 상황이며, 한-아세안 FTA에 따른 관세인하는 철강제품의 수입에 매우 큰 도움을 주고 있음.
- 다만, 필리핀정부가 자국의 제조산업 보호를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해 민감품목으로 분류하고 있어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개선의견

- 일본-필리핀 자유무역협정(JPEPA)과 같이 양국의 특수성과 강점을 활용한 한국-필리핀 쌍무협정 체결 필요

③ SYTENGO PHILIPPINES CORP. (화학제품 수입)

FTA활용 및 애로사항

- 필리핀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필요한 품목에 대해 민감품목으로 분류하고 고율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한국산 화학제품이 필리핀 시장내에서 중국과 경쟁이 어려운 상황
- 한국의 화학제품 공급업체들은 일본의 쓰나미 및 지진으로 초래된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공세적인 마케팅 노력을 기울여야 할 단계로 판단됨.

개선의견

- 중국 제품과 비교해 가격경쟁력 있는 품목 위주로 선별화된 시장진출 노력이 필요하며 한-아세안 FTA와 별도로 한-필리핀간 쌍무협정 혹은 협상을 통해 민감품목에 대한 적용완화 합의 필요

4. 베트남

1) 수출유망품목과 수출동향

□ FTA체결이후 주요품목의 수출동향

- 2010년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액은 약 97억달러이며, 한-아세안 FTA가 체결된 이후 연평균 25% 증가하였음.
 - 주요 수출품목이 철강, 석유제품, 자동차 및 부품은 민감품목으로 분류되어 있거나 12~80%에 이르는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음.
- 한-베 교역 패턴을 보면, 한국의 對베트남 수출 품목은 투자기업의 원부자재 조달 수요로서 총 수입의 약 60% 차지하며, 투자기업들은 수출기업들로서 원부자재 조달 품목은 무관세 적용

< 한국의 對베트남 수출상위 10대 품목의 수출액(2010) >

(단위 : US\$백만)

순위	품목코드 (HS코드)	2006	2007	2008	2009	2010	연평균 증가율
	총계	3,927	5,760	7,805	7,149	9,652	25%
1	휴대전화기부품 (851770)	0	6	6	151	658	-
2	제트유 (271019)	498	1,282	1,929	537	565	3%
3	철강제품 (720839)	2	14	49	142	307	252%
4	염색편물 (600622)	109	176	219	231	278	26%
5	휘발유 (271011)	0	0	103	181	243	-
6	철강제품 (720838)	1	6	16	55	195	274%
7	편직물 (600410)	58	105	176	173	186	34%

8	골프차량 (870323)	3	36	56	181	174	176%
9	자동차부품 (870899)	25	52	113	154	155	58%
10	화물차 (870421)	61	87	112	192	151	25%

자료원 : 무역협회

□ FTA에 따른 수출유망품목과 수출액 변화

- 2007년 한-ASEAN FTA 발효로 당시 對베트남 수출유망(예상)품목⁶⁾의 수출은 FTA 발효 이후 2010년까지 연평균 17.4% 증가
- 베트남의 경우, 다른 아세안 6개국과 달리 일반품목의 관세철폐시한이 2016년으로 길어 현재까지 FTA를 활용한 수출증대효과가 미미한 실정
 - 자동차부품의 경우, 2009년 베트남 정부의 자동차 등록세 한시적 감면(5~12월)으로 한국산 자동차 수입증가로 부품 수요 증가
 - 베트남의 對한국 수입품목의 관세 인하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품목의 경우 MFN 보다 높은 관세역전 현상 발생
- 현재, 한국과 베트남 양국은 한-ASEAN FTA보다 개방도가 높은 양자간 FTA 공동연구를 진행중에 있고, 조만간 협상을 개시할 예정
 - 양자간 FTA협상에 소극적이었던 베트남 정부도 우리나라와 FTA를 추진으로 방향으로 전환하였는 바, 최종 소비재를 중심으로 조기 관세 인하를 요구하는 전략 필요
 - 중국산 제품은 FTA 혜택과 무관하게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 시장진출 차별화를 위해 고급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 모색 필요

6) 한-아세안 FTA 체결 후 대아세안 수출유망품목, KOTRA, 2006.5

< 한국의 對베트남 수출유망(예상)품목의 수출액 >

품목명 HS코드	수출금액(US\$백만)				연평균 증가율
	2007	2008	2009	2010	
자동차부품 (870800)	61	126	171	175	42.1%
면직물 (520811)	10	12	11	16	17.0%
인조가죽 (590310)	132	139	115	132	0.0%
입술화장품 (330410)	0.3	0.4	0.4	0.7	32.6%
종이류 (480221)	0.1	0.5	2.5	3.5	227.1%
오토바이 (871110)	0.01	0.01	0.01	0.2	171.4%
헤어드라이어 (851631)	0	0	0.01	0.01	-
전자레인지 (8516.50)	0	0	0	0	-
학용품 (392610)	0.3	0.5	0.1	0.2	-12.6%
자동차타이어 (401110)	0.6	1	1.4	3.2	74.7%
여성의류 (610413)	-	0.04	0	0.03	-
합계	204	279	301	331	17.4%

자료원 : KOTRA 하노이KBC 자체조사

< 수출유망(예상)품목의 관세율 비교 >

HS코드	MFN관세 (2011)	AK-FTA관세				
		2007	2008	2009	2010	2011
자동차부품 (870800)	10	8	8	8	8	5
면직물 (520811)	12	12	12	12	12	12
인조가죽 (590310)	12	12	12	12	12	12
입술화장품 (330410)	26	Sensitive list				

종이류 (480221)	23	Sensitive list				
오토바이 (871110)	80	Sensitive list				
헤어드라이어 (851631)	28	Sensitive list				
전자레인지 (8516.50)	28	Sensitive list				
학용품 (392610)	24	35	35	25	25	20
자동차타이어 (401110)	28	Sensitive list				
여성의류 (610413)	20	20	20	20	20	20

자료원 : 베트남 관세청

2) 베트남 바이어의 FTA활용과 애로사항

- 베트남 바이어들은 아직까지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상황이며, 저가위주의 시장형성에 따라 중국산 선호 현상, 느리고 점진적인 관세인하에 따른 낮은 혜택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됨.

① Trading & Dev Phuong Dong Co., Ltd (완구 수입)

- (한국과의 교역현황) 한국과의 기존 교역실적은 없었으나, '07년 KOTRA 소개로 '09년부터 "IQ Key(electronic motors 완구)" 수입('09.9월부터)중
- (FTA 활용현황) 한국으로부터의 수입품이 FTA 적용을 못 받아 FTA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시 15%, 태국 등 아세안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시 5%에 비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시 20%의 관세 부담
 - * 한·베트남 교역 제품이 12,063여개 제품이나 한·아세안 FTA 적용 제품은 7,991개 제품으로 주요 수입완구는 FTA 적용 제외

- (FTA 활용 문제점) 주 수입품의 FTA 미적용과 더불어 베트남 기업에 대한 독점 수입권 부여로 자유로운 무역거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
- (향후 전망) 베트남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가격보다는 품질, 안전, 디자인적 요소 등에 대한 관심이 커져, 한국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어 FTA 적용시 한국으로의 수입선 전환 의사 있음
 - * 한국제품이 질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제품에 비해 월등히 좋으나, 관세 등으로 인한 높은 가격으로 인해 소비(수입) 비중이 낮은 것으로 평가

② Millenniums Joint Stock company (PVC 제품 수입)

- (한국과의 교역현황) 한국 제품이 질적인 면에서 우수하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으나, 운송비 문제 등으로 아직 수입 실적은 없는 실정
- (FTA 활용현황) 값싼 중국제품을 주로 수입하고, FTA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실정
 - * 한국산 보다 20%가량 저렴하고, 베트남 바이어 대부분이 현재로서는 품질 보다는 가격면에서 중국산을 더 선호
- (향후 전망) 가격면에서 한국산이 20% 정도 다운된다면 품질면에서 우수한 한국으로의 수입선 전환 의사 있음

③ TULA Solution Co., Ltd (네트워크/IT 제품 수입)

- (한국과의 교역현황) 현재까지는 한국과의 교역은 없었으나, '09.11.30일 전자 과증폭기 관련 구매협약을 체결한 상태로 '10년부터 수입·판매 예정
- (FTA 활용현황) IT 부품은 WTO IT협정 등에 따라 FTA와 상관없이 대부분 무 관세로 수입
- (향후 전망) 한국의 운송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품질면(일본>한국>대만>중국)에서 고품질로 인정받고 있어 미래 시장성은 밝음. 일본과 같이 현지업체와 생산 제휴 및 기술이전 등 포괄적이고 집중적 투자가 필요

④ TMC Production & Int'l Trading Co., Ltd (합관 수출)

- (한국과의 교역현황) 매월 20~30만불 가량의 합관을 수출하고 철을 매월 8만불 가량 수입. 전기장판(겨울에만), 벽지(신규사업으로 착수) 수입 진행중
- (FTA 활용) 한국 바이어의 원산지 증명 요청이 없어, FTA를 활용하지 않는 상황(합관 관세율 : 8%)
 - * 처음 접한 한국기업을 통해 주거래선이 한국이 되었으나, 국내 많은 생산회사로부터의 원산지증명이 곤란한 점을 한국 바이어가 이해
- (향후 전망) 한국산 제품의 품질이 높고, 일본·EU와 비교시 운송비 등 가격이 유리하여 향후 한·아세안 FTA 활용률은 증가할 것임

5. 태국

1) 한-태 FTA 체결 현황

□ 태국, 한-아세안 FTA 2010년 발효

- 한국과 아세안은 2006년 8월 상품협정에 서명하였으나 아세안 주요 국가 중 태국만은 서명에 불참
 - 2010년 1월 1일 한국과 태국의 상품협정이 발효되어 한-아세안 FTA가 실질적으로 완성됨

- 태국의 상품관세 양허 계획에 따르면, 일반품목은 5209개이며 이중 약 89%인 4916개 품목의 관세가 2010년까지 철폐되었으며, 2012년까지 165개, 2016년 50개, 2017년 78개 품목의 관세가 철폐될 예정임.

< 태국의 상품 관세 양허 계획 >

구분	일반품목(NT)		민감품목(ST)	
	NT1	NT2	SL	HSL
품목수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2010 : 4,916(89.14%) ▪ ~ 2012 : 165(2.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2016 : 50(0.91%) ▪ ~ 2017 : 78(1.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2016 : 175(3.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수 : 131개 ▪ 수입액 : 3.74%
수입액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2010 : 81.45% ▪ ~ 2012 : 1.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2016 : 3.24% ▪ ~ 2017 : 4.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2016 : 5.20% 	A(6) 2016까지 50%인하 B(37) 2016까지 20%이상 인하 C(6) 2016까지 50% 이상 인하 D(51) 최소수입물량적용 E(31) 관세양허 제외
자유화 목표	2017까지 품목수 5,209(94.45%), 수입액 91%가 관세 철폐		2016까지 관세 5%이하로 감축	

NT: Normal Track, ST: Sensitive Track, SL: Sensitive List, HSL: Highly Sensitive List

자료원 : 한국관세청

< 태국의 주요품목 양허 계획표 >

(단위: %)

품목명 (HS코드)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화장품 (330300)	21	18	15	12	9	6	3	0
실크스카프 (621410)	30	30	20	20	20	20	5	5
모터사이클 (8711)	60	60	60	60	60	60	50	50
승용차 (870324)	80	80	80	80	80	80	64	64
타이어 (4012)	10	10	10	10	10	10	5	5
철강제품 (730640)	9	9	9	9	9	9	4.5	4.5
페인트 (3208)	10	10	10	10	10	10	5	5
라텍스 (400211)	12.5	12.5	12.5	12.5	12.5	12.5	5	5
담배 (240120)	72	양허제외						
지프형자동차 (870331)	80	양허제외						

자료 : 한국관세청, 태국관세청

2) 태국 바이어 / 진출기업의 FTA활용과 애로사항

- 한-아세안 FTA 활용관련, 태국의 바이어와 한국 진출기업들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을 공통적인 애로사항으로 지적

□ 태국 바이어

① A.J. Plast Pubic Co., Ltd (석유화학제품 수입)

- (애로사항) 한국 수출기업이 C/O 양식을 정확히 갖추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
- (개선방안) C/O 양식을 작성하여 송부시 정확한 정보 기재 및 오류발생시 재송부 필요

② PC Protect (UV 램프 수입)

- (애로사항) 한국기업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였으나 7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준비서류가 많다는 이유로 원산지 증명서를 보내지 않고 있음.
- (개선방안) 원산지증명서를 조기 송부할 수 있도록 준비서류 간소화

③ Prairie Marketing Limited(식품류 수입)

- (애로사항) 한국기업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다양한 서류를 준비하는데 애로가 있음. 태국수입업체 역시 먼저 관세를 지불한 후 AK-FORM(원산지증명서)을 제출하고 관세를 환급받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인데 관세환급시 태국 세관에서 비협조적임.
- (개선방안) 양국 FTA 실무담당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기업편의 제공 필요

④ Improve Technology Engineering Co., Ltd (디지털 도어락 수입)

- (애로사항) 한국기업이 AK FORM을 준비하는데 4개월이 걸린다는 이유로 제품 수출시 FTA를 활용하지 않음. 다음 제품 선적시는 AK FORM을 구비할 예정이라고 함.
- (개선방안) 관련서류 준비의 간소화

⑤ V.T.C Enterprise (디지털 도어락 수입)

- (애로사항) 동일한 품목에 대한 한국과 태국의 HS-CODE 세부번호가 달라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개선방안) 양국 관세청의 대업체 정보전파 필요

□ 한국 진출기업

① S사 (기계 부품 수입)

- (애로사항) 한국 수출기업 중 40%는 AK-FORM을 제공하나 나머지 60%는 AK-FORM을 제공하지 않고 있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원자재를 여러 국가로부터 수입하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감.
- (개선방안) 원산지증명서 준비서류 간소화

② D사 (무역업)

- (애로사항) 새로운 제품을 한국에서 태국으로 수입시 새로운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애로가 발생. 동일 제품을 반복적으로 수입시는 큰 문제가 없음.
- (개선방안) 원산지증명서 준비서류 간소화

③ L사 (화학제품 수출입)

- (애로사항) 과거에는 AK FORM 발급이 수일이면 완료되었으나 최근에는 수주일이 걸리고 있음. 해당 기관에서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요함.
- (개선방안)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간 단축

④ H사 (냉장고 부품 수입)

- (애로사항) AK FORM과 인보이스에 기재된 정보에 차이가 종종 발생하여 통관진행에 애로 발생. 또한 동일한 제품의 수입시도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항상 제출하여야 함.
- (개선방안) 동일 제품 반복 통관시는 원산지증명서 사본도 가능토록 조치

⑤ R사 (건전지 원자재 수입)

- (애로사항)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양국 HS CODE 체계가 달라서 문제 발생. AK FORM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동 업체는 FTA를 활용하는 대신 태국 관세청의 투자인센티브를 신청하여 무관세 통관 진행
- (개선방안) 양국 관세청의 실무적인 협조 필요

III 시사점

- 한-아세안 FTA, 한국의 對아세안 수출확대에 기여
 - 2007년 6월 1일 발효이후 한-아세안 FTA는 만 4년이 경과하였으며, FTA체결 이전인 2006년 아세안은 한국의 제4위 수출대상국에서 2010년에는 중국에 이은 제2위 수출대상국으로 부상
 - * 연평균 수출증가율에서도 아세안은 전체평균(5.9%)보다 높은 8.9%를 기록

- 아세안 국별 주요수출품목 중 FTA로 관세가 인하된 품목은 수출 크게 증가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별 수출은 아세안 전체 수출증가율보다 높은 성장을 기록
 - 수출상위 10개 품목의 수출증가율은 상기 5개국 모두 두자리수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
 - FTA 체결로 인해 관세가 인하되거나 철폐된 품목의 경우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음.

- 현지 바이어/진출기업, FTA 활용을 위해 복잡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관세혜택 품목 확대 등 개선 요구
 - FTA 상품협정에 따라 느리고 점진적인 관세인하 혹은 철폐 스케줄로 인해 실질적인 관세혜택이 미미해 현지 바이어나 진출기업의 FTA 활용도와 관심이 다소 낮음
 - 그러나, FTA에 따른 수혜품목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으며, 이들 기업들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간소하고 양자간 FTA 협상을 통해 관세혜택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 FTA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양자간 FTA 추진 필요

- 한-아세안 FTA는 국가특성이 다른 아세안 10개국이 공통으로 협상을 한 것으로 상품양허 자유화 수준이 낮아 기존의 한-칠레 FTA와 같은 높은 활용률과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실정

- 이 점을 조기에 간파한 일본은 아세안과 FTA와는 별도로 개별국가와 FTA를 체결하였고, 중국은 FTA체결 이전부터 저가제품으로 아세안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어 우리 정부도 아세안 개별국가와 수준 높은 FTA협상을 본격화할 시점

2011년 KOTRA 발간자료 목록

□ GBR (Global Business Report)

번호	제목	발간일자
11-001	Check it~! 2011년 해외시장 이렇게 달라진다	2011.1
11-002	한미 FTA 발효에 대한 美 바이어 현지 진출 한국기업 및 투자가 반응 조사	2011.1
11-003	남부 수단 독립 진전 현황 및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2011.2
11-004	美 바이어가 뽑은 한-미 FTA 10대 수출유망품목 및 진출전략	2011.2
11-005	월드컵 특수, 카타르 인프라 프로젝트 시장동향	2011.3
11-006	위기의 리비아, 대체시장을 잡아라	2011.3
11-007	일본 · 인도 CEPA체결의 파급효과와 현지반응	2011.3
11-008	금융위기 이후 중남미 시장 트렌드 1편(멕시코, 브라질편)	2011.3
11-009	금융위기 이후 중남미 시장 트렌드 2편(칠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편)	2011.3
11-010	동 · 서남아 주요국의 노무여건 변화와 진출기업의 대응 방향	2011.4
11-011	한-페루 FTA 수출유망상품 및 진출방안	2011.3
11-012	일본 대지진 발생 한달 -일본 산업계 복구현황과 대일 수출입 영향	2011.4
11-013	우리기업의 對인도 투자 트렌드 변화	2011.4
11-014	요르단 물 부족 실태, 정부대책 및 우리 기업 참여 방안	2011.4
11-015	히트상품을 통해 본 일본 소비시장 동향	2011.4
11-016	베트남 유통시장 현황과 진출전략	2011.4
11-017	한-EU FTA로 날개 달 중소기업 50대 수출유망상품	2011.5
11-018	미국 가상상품 시장, 이제 시작이다	2011.5
11-019	키워드로 본 2011년 글로벌 소비트렌드	2011.5
11-020	민주화 사태 이후, 중동 바이어가 전망하는 新 중동 시장	2011.5
11-021	아프리카 표준인증제도 현황 및 의미	2011.5
11-022	일본 지진 이후 식품시장 현황	2011.5
11-023	MENA 사태 이후 150일, 시장 변화와 전망	2011.6
11-024	요르단 전력산업 현황 및 우리 기업(정부) 진출 전략	2011.6
11-025	인도 인플레이션에 따른 투자진출비용변화	2011.6
11-026	한-EU FTA 최대 수혜주, 자동차부품시장을 잡아라!	2011.6
11-027	아프리카 지역내 창업여건 및 유망분야	2011.6
11-028	한-아세아 FTA 체결이후 수출유망품목의 수출동향	2011.6

□ GIR (Global Issue Report)

번호	제목	발간일자
11-001	최근 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2011 전망	2011.1
11-002	Post 무바라크 이집트 경제동향 및 전망	2011.2
11-003	한미 FTA에 따른 美 정부조달시장 진출 기대효과 전망	2011.2
11-004	선진국의 환경규제와 기업의 대응사례	2011.4
11-005	2011 美 USTR 무역장벽보고서 주요내용과 시사점	2011.4
11-006	남유럽 재정위기 1년, 현재 유럽은?	2011.5
11-007	팍스 시니카, 한국의 기회와 위협	2011.5

□ KEB (KOTRA Executive Brief)

번호	제목	발간일자
11-001	2011년 1분기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2011.1
11-002	이집트 反정부 시위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2011.1
11-003	해외바이어들이 전망하는 최근 이집트사태가 각국 경제 및 우리나라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	2011.2
11-004	이집트사태에 따른 우리기업 피해내역	2011.2
11-005	이집트 사태가 중동과 우리기업에게 미친 영향	2011.2
11-006	중동 북아 사태에 따른 세계경제영향과 향후전망	2011.3
11-007	일본 지진사태가 주요국의 산업에 미친 영향	2011.3
11-008	2011년 2분기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2011.3
11-009	Post 중동민주화, 중동진출 새 활로 된다	2011.4
11-010	시리아 민주화 사태에 따른 우리기업의 유의사항	2011.4
11-011	일본기업의 생산거점 이전 현황조사	2011.6
11-012	해외시장에서 바라본 2011 하반기 수출 전망	2011.6

□ KOCHI자료

번호	제목	발간일자
11-001	위안화 무역결제 확대에 따른 우리기업의 동향 및 전망	2011.3
11-002	세수(稅收)로 보는 2011 중국경제	2011.3
11-003	중국 고속철도 시대와 新소비지도	2011.3

11-004	中國 소비, Code로 잡는다	2011.5
11-005	中, 위안화 대폭 평가절상 가능성은?	2011.5
11-006	ECFA 체결 1주년 점검, 중-대만기업 설문조사	2011.6

□ 외국인투자정책센터자료

번호	제목	발간일자
11-001	한-EU FTA 발효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전략	2011.1
11-002	일본 『아시아 거점화 추진전략』 조사 및 시사점 분석	2011.5
11-003	러시아의 해외투자 동향 및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	2011.6

□ KOTRA자료

번호	제목	발간일자
11-001	2011 지역별 진출전략	2011.1
11-002	MDB를 통한 해외 정보통신시장 진출전략	2011.1
11-003	스마트 TV 플랫폼 및 콘텐츠의 해외진출 방안	2011.1
11-004	SW 글로벌 마켓 클릭	2011.1
11-005	외국인투자기업, 한국과 통하다 - 대표 외국인투자 성공사례	2011.2
11-006	중국의 성시별 해외투자정책 연구	2011.3
11-007	중국의 금융지도	2011.3
11-008	주력품목별 수출시장 전망 및 확대 방안	2011.2
11-009	2010년 해외 고급인력 수요조사 결과보고서	2011.3
11-010	필리핀 노동법 핵심번역본	2011.3
11-011	GUIDE TO BUSINESS ESTABLISHMENT IN KOREA	2011.3
11-012	GUIDE TO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	2011.3
11-013	Partnering for the Better Future - 30 Success Stories of Foreign-Invested Companies	2011.3
11-014	KOTRA 공동물류센터의 중장기 발전 방안	2011.3
11-015	세계 이터닝 전략지도	2011.4
11-016	그린리포트(Vol 11. 2011 Spring)	2011.4
11-017	주요 7개국 M&A 동향 조사	2011.4
11-018	韓國投資指南与企業經營信息 (한국 투자가이드 및 기업경영정보)	2011.5
11-019	300개 외투기업 주요경영지표 분석	2011.5

11-020	국내주요기관의 해외네트워크 2011	2011.5
11-021	'10년 해외주요국 투자동향	2011.5
11-022	韓國投資ガイドおよび企業經營情報 (한국투자가이드 및 기업경영정보)	2011.5
11-023	외국인직접투자와 해외직접투자의 연계성과 국제투자정책	2011.5
11-024	브라질 투자실무가이드	2011.6
11-025	SEOUL FOOD 2011 결과보고서	2011.6
11-026	EU 조달시장 진출가이드	2011.6

□ 설명회자료

번호	제목	발간일자
11-001	2011 KOTRA 글로벌마켓 포럼	2011.1
11-002	2011 친디아 포럼	2011.1
11-003	글로벌 SW진출전략 워크샵	2011.1
11-004	2011 KOTRA 해외 공공조달 포럼	2011.1
11-005	2011 아프리카 포럼	2011.1
11-006	한-EU/한-미 FTA 기회와 도전 설명회	2011.1
11-007	2011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포럼	2011.1
11-008	Dow Chemical Global Alliance Project Series	2011.1
11-009	Global IT Channel Vision 2011 (대형 IT유통사 초청 구매전략 설명회)	2011.2
11-010	글로벌 인재유치 및 활용전략 세미나	2011.2
11-011	중동·북아프리카 시장 긴급점검 설명회	2011.3
11-012	2011 글로벌 공공병원 기자재 조달플라자	2011.4
11-013	브라질 월드컵 프로젝트 설명회	2011.4
11-014	러시아 사하공화국 대통령 경제사절단 설명회	2011.4
11-015	2011 춘계 글로벌 파워텍 연계 세미나	2011.5
11-016	해외투자전략심포지움	2011.5
11-017	중국 신홍 유통기업 초청 구매전략 설명회	2011.5
11-018	제 1회 아프리카 비즈니스 트렌드 포럼	2011.6
11-019	한-대만 산업자원 협력 포럼	2011.6

작성자

◆ 자카르타 KBC	윤여필 차장
◆ 칼라룸푸르 KBC	이종민 과장
◆ 마닐라 KBC	김군기 차장
◆ 하노이 KBC	권경덕 차장
◆ 방콕 KBC	박영선 과장
◆ 아대양주팀	김종상 과장

Global Business Report 11-028

한-아세안 FTA 체결이후
수출유망품목의 수출동향

발행인 | 홍석우
발행처 | KOTRA
발행일 | 2011년 6월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우 137-749)
전화 | 02) 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 2011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